

파견기간	2019.03.01- 2019.08.31	교 환 학 생 귀국 보고서	소 속	공과대학 건축학과
파견국가	독일		성 명	김단아
파견대학	Technical University Berlin		작성일	2019.08.04

이메일 주소: kda0313@snu.ac.kr

I. 개요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제 전공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졸업하기 전에 해외로 나가 보다 다양한 학문과 사람을 접하고 싶었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학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현지에서 유학하고 있는 선배의 조언에 큰 도움을 얻어 최종적으로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 파견 지역/대학 선정 이유

제 전공인 건축 분야에서 독일이 가장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 건축과 문화재 보존,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들 모두에 관심이 있었고 또한 문화 예술적으로 보다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에 지원하고 싶었기에 베를린에 위치하고 건축전공이 있는 Technical University Berlin 에 신청하였습니다.

3. 파견 지역/대학 소개

TU Berlin 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공과대학으로, 90 가지 전공분야의 3 만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독일 내에서도 큰 규모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학교입니다. 공과대학이지만 경제, 역사 등 전공분야가 공학에 한정되지 않아 종합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베를린 내 자유대학교와 훔볼트 대학교와의 학점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베를린 공대에 지원하여도 사실상 모든 분야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4. 파견 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Olaf Reupke (olaf.reupke@tu-berlin.d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hours: 화,목 9:30-12:30)

H41b,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Strasse des 17. Juni 135, 10623

Berlin, Germany

TU Berlin 유럽 외 교환학생 담당자입니다. 오피스 아워가 짧고 담당자가 휴가를 자주 가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미리미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독일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해놓은 곳이 많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청에 예약을 잡는 것과 각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청 예약(테어민)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평소에는 예약 가능한 날짜가 전혀 없지만 며칠에 한 번씩 랜덤하게 약 한달 후쯤 날짜의 두세 개 가능한 시간대가 생깁니다. 최대한 홈페이지를 자주 체크하며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예약을

잡지 못할 경우 새벽 5 시 즈음 직접 가서 번호표를 받아 기다리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나, 대략 대여섯 시간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사본, 여권 사진, 거주지등록서류, 재학증명서, 보험 서류, 잔액증명서가 있고,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등록은 입국 후 14 일 이내가 원칙인데, 또한 여러 군데 있는 구청 중 한군데에 예약을 하거나 당일 아침 직접 방문하여 순번을 기다리면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 입주 시 받는 서류와 여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미리 써가야 하나 저는 방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학증명서는 TU Berlin 등록이 완료된 이후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보험은 한국에서 미리 든 사보험 서류를 가지고 학교 앞 AOK 사무실을 방문하여 웨이버를 받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 한 학기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슈페어konto 없이 N26 계좌의 720 유로*체류 개월 수 잔액증명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단계가 많아 꼼꼼히 준비하는 일이 힘듭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만난 직원들이 대부분 영어에 능통하며 빠르게 일처리를 해주어 정작 관청에서의 일처리는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56 유로의 비자 발급 비용인데, 현금과 EC 카드로밖에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여 결제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2. 교환 장학금 지원 시기 및 방법

저는 공과대학 국외수학 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교환학생 합격 이후 공과대학 대외협력실에서 메일로 연락이 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 경우 본부파견 교환학생에게도 공과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번 학기가 처음이라 공지를 늦게 받았는데, 2 월 8 일 공지메일을 받아 15 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인 국제협력본부장학금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최종적으로 선발되어, 3 월 초에 실제 장학금을 수령하였습니다.

3. 숙소 지원 방법

교환학생 합격 이후 가장 먼저 파견대학 담당자에게 공지 받는 내용은 기숙사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지망 기숙사를 한군데 적어 서류를 보내면 3 주 정도 후에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학교에서 가깝고 저렴했던 Siegmunds Hof 에 지원하였고 합격하여 3 월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시에는 보증금과 첫 달 기숙사비를 합쳐 한 달 기숙사비 2.5 배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나중에 따로 제출하는 서류에 적는 계좌로 퇴사 후 1-2 개월 후 환불됩니다.

Siegmunds Hof 는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대신 개인 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건물 전체를 교환학생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활기차고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국외수학허가 신청 절차

국외수학허가 신청이 실제 수강신청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도의 수강편람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교양수업은 인정되지 않고 타과 전공수업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이 되며, 서울대 수업주수와 파견 대학의 수업주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을 환산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듣고 싶은 과목들 중 서울대에 유사 과목이 있는 수업들 위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류 제출로 신청한 후 출국하였고,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으로 학기 중에 온라인으로 국외수학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5.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교환학생 선발 이후에도 TU Berlin 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등록절차에서 한 학기 분의 교통비 257.54 유로를 한 번에 지불하여 학생증을 교통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은 공지 메일에 제공된 링크에서 작성하여 마지막 출력되는 서류와 여권사본, 교통비 지불 확인, 그리고 앞서 언급한 보험서류나 웨이버를 담당자인 Olaf 에게 Office hour 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완료됩니다. 학생증은 그 후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저는 정규학기가 시작되기 전 3 월 어학코스를 수강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학생증 없이 1 개월 교통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먼저 전체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때 나눠주는 서류를 작성한 후 BVG

Kundenzentrum 을 방문하여 학생권으로 1 개월 교통권을 끊어 줄 수 있는지

문의해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BVG 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절당하더라도 여러 군데에 시도해보면 됩니다.

III.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TU Berlin 의 수강신청은 보통은 따로 전산 절차는 없고, 교환학생은 수강편람에 적힌 첫 오리엔테이션에 출석하여 리스트에 이름을 적고 교수님께 학기말에 증명서(샤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보면 됩니다. 그러나 인기 대형 강의의 경우 선착순으로 전산등록을 하거나 신청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학과의 수강신청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전체 강의를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두 메일로 공지됩니다. 설계스튜디오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과제가 주어지고, 이 과제를 평가하여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하나의 스튜디오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선발되지 않으면 과사에 문의하여 반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설계스튜디오 수업과 함께 타과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리학과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설계스튜디오 수업이 시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대의 건축학과 5 학년은 이곳 석사 2 학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TU Berlin 의 대학원 과정 설계스튜디오는 크게 도시 설계와 건축 설계로 나누어지며, 제가 수강한 스튜디오는 전자여서 도시설계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미나를 수강할 수 있으나 제가 듣고자 했던 강의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교환학생은 수강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학과 대학원 전공 중 M-arch-T 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전공으로 전부 영어로 진행됩니다.

또 수강한 지리학과 수업은 GIS A 로, 지리정보 시스템의 이론적인 배경을 배울 수 있는 강의와 실제 GIS 프로그램(ArcGIS)을 다루보는 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부보다는 대학원 수업에 영어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3. 학습 방법

설계스튜디오 수업은 전부 팀플로 진행되어 정규 수업인 주 1 회 크리틱 이외에도 2 회 씩 혹은 더 자주 조원들과 만나 과제하는 시간이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기말 발표 이외에 학기중 두세 번의 발표가 있고, 이곳에서는 봄학기가 2 학기이기 때문에 연간 전시회가 학기말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제출로 성적을 받게 됩니다. GIS 수업은 중간에 따로 과제는 없고, 시험은 학기말에 구술시험으로 진행됩니다. 랩의 경우에도 과제는 없으며 평가 비중은 랩보다 강의가 더 컸습니다. 학습 방법은 별 차이가 없으나 평가가 구술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암기하지 않아도 좋으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저는 생활 회화정도의 실력을 위하여 정규학기가 시작되기 전 TU Berlin 에서 제공하는 3 월 독일어 집중어학코스를 수강하였습니다. 가장 기초반인 A1 단계를 수강하였고 수업은 복잡한 문법 설명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독일어로만 진행됩니다. 저는 철자 읽는 방법 등과 같은 기초를 한국에서 미리 공부한 후 수강하여 이 점이 크게 힘들지 않았으나 독일어를 아예 처음 접한다면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3-4 시간씩 매일 독일어로 말하고 듣는 수업이다 보니 효과적입니다. 학기 중 어학코스 또한 신청하여 수강하였으나 주 2 회이고 시수도 적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 어학코스는 전산신청으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한편 정규 학기 수강은 전부 영어로 하였고, 특히 스튜디오 수업의 경우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많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은 한국 교환학생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영어로 말하는 것이 많이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이외의 수업과 기숙사에서 만나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대화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독일 대학의 강의들은 대체로 여러 번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강 직후와 8-9 월중, 다음 학기 개강 직전의 세 번의 시험 날짜가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교환학생들은 보통 가장 이른 날짜의 시험을 쳐야 하는데, 귀국해야함을 설명하면 대체로 교수님들께서 배려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IV. 생활

1. 가져가야 할 물품

독일의 3-4 월은 습하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매우, 매우 춥습니다. 점퍼나 패딩조끼 같은 겨울옷을 꼭 적어도 한 벌은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여름이 시작되고 겨울옷을 모두 한국으로 보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며칠을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지만 우산을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되도록 방수가 되는 외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울 때에는 한국에 버금가게 덥습니다. 선글라스는 멋진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해 필요하고, 손선풍기가 있다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것은 사소하지만 목욕용품인 담는 바구니로, 저처럼 공용욕실이 있는 기숙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행용 목욕용품 걸이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필기구 정도를 제외한다면 다른 물품들은

현지에서 구매해도 충분히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전기밥솥이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도 페이스북 독일 유학생 네트워크에서 중고로 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현지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싸지만 외식은 비쌉니다. 요리를 즐겨 해먹을 경우 생활비를 오히려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식과 비용을 절충하다보니 생활비는 여행경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하고 550 유로 정도로 한국에서 생활할 때와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이외의 생활용품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합니다. 처음 도착하여 생활용품은 이케아, 미디어Markt, 맥가이즈, 유로샵, 타이거 코펜하겐 등에서 구입하였고, 평소 장보기는 리들과 레베 그리고 학교와 가장 가깝고 물품종류도 많지만 약간 비싼 올리히 슈퍼마켓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웬만한 한국음식 재료는 고아시아라는 아시안마켓에서 구할 수 있으며, 베를린 시내에는 정육점이 따로 잘 없기 때문에 육류는 터키마켓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한인마트도 베를린에 소규모로 두 군데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학생식당은 멘자라고 하여 시에서 운영됩니다. 멘자카드로만 결제를 할 수 있는데, 기숙사 또한 같은 곳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카드로 기숙사의 세탁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베를린 내의 모든 멘자를 학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끼에 3-4 유로 정도이며, 메인 멘자 외에도 각 과 건물에 위치한 식당들이 각각 다릅니다. 저는 건축학과 건물의 식당과 그 건물 뒤편의 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추천합니다.

은행은 인터넷 은행인 N26 을 이용하였습니다. 계좌 개설이 쉽고 현금 인출 등 이용 또한 편리하나 이 은행을 이용할 경우 마스터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EC 카드만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보안이 취약하여 가끔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큰 금액을 한꺼번에 자주 이동하면 사기성으로 의심받아 계좌가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교통비와 핸드폰 요금 또한 한국보다는 저렴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국 보다폰 유심을 구입하여가서 계속 사용하였는데 한달 20 파운드에 10기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였습니다. 독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디톡의 경우는 이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저는 따로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았고, TU Sports 라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체육 강의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TU Sports 는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는 강의 목록이 올라오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인기 강좌는 빨리 마감됩니다. 스튜디오 수업이 강도가 높아 다른 교환학생들에 비해 자주 여행을 가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봄학기에는 가을보다 공휴일이 많아 연휴가 있을 때마다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독일 내 여행 또한 버스나 철도를 이용하여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다녀오는데, International Office 에서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투어를 제공해주어 친구들과 함께 드레스덴에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미술관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베를린은 수백 개에 달하는 갤러리가

있는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박물관 섬의 유명한 미술관 외에도 Hamburger Bahnhof와 Sammlung Boros, KW 를 가볼 것을 추천합니다. Sammlung Boros 는 클럽으로 쓰이던 벙커를 개조한 갤러리인데,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베를린은 특별히 치안이 안 좋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또한 인구의 15%가 외국인인 도시이기 때문에 인종차별도 저는 크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상점들이 대부분 일찍 닫고 주거지역은 아주 조용해야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거리가 많습니다. 주말에는 대중교통이 거의 24 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만큼 늦은 시간에는 이상한 사람을 마주칠 가능성이 많으니 조심합시다.

6.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베를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커리 부어스트나 케밥, 슈니첼, 슈바인학센과 아이스바인 정도가 있겠으나 가장 자주한 외식은 아무래도 아시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학교 근처의 아리랑 식당은 가깝고 비교적 저렴하여 자주 이용하였고, 베트남 음식점은 어디든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일식집으로는 코코로 라멘을 추천합니다. 베를린은 클럽문화로 가장 유명하고 곳곳에서 독일 맥주를 즐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날씨가 좋을 때 도심 공원들에서 피크닉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Gölitzer 공원과 베를린 돔 앞의 잔디밭, 빅토리아 공원, Gleisdreieck 공원을 추천합니다. 여름에는 Sommerbad 라는 야외 공공수영장이 여러 군데 운영되는데 이용료가 저렴하며 각각이 모두 특색이 있습니다. Wansee 의 모래사장이 있는 야외 수영장 또한 추천합니다. 또한 주말에 하루 코스로 근교의 포츠담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입학 때부터 줄곧 꼭 다녀오리라 마음먹었던 교환학생이라 지내는 내내 무척 행복했고, 끝나게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성격이어서 외국에 혼자 나가 생활한다는 것이 큰 도전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무사히 마치게 되어 뿌듯합니다. 정말 많은 경험이 되었고 특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예술적으로도 가치 있는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선택한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도 항상 얼른 베를린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만큼 저는 이 도시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 제 교환학생 생활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싶은 모두에게 베를린으로 올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